

여수시, 官주도 탈피 행정 중심축 ‘시민’으로 대전환

시민주권시대 선언 14대 혁신과제 시동
공론장·현장소통 재편 시민주권위 출범
AI기반 24시간 스마트 민원 체계 구축
관급자제 심의 강화·미래전략실도 신설
서영학 시장 “다시 뛰는 여수 꼭 완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가 민선 9기 관 주도의 일방적 행정에서 벗어나 시정의 전권을 시 민에게 돌려주는 ‘시민주권시대’를 선언했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 속으로, 세계 속으 로, 다시 뛰는 여수’라는 비전 아래 ▲시민 직접 참여 제도와 ▲24시간 AI 스마트 민원 체계 구축 ▲무관용 청렴 행정 ▲공정한 재정·계약 시스템 등 14대 핵심 추진 과제를 확정하고 행정 혁신에 돌입했다. 여수시는 시민 목소리를 시정 전반에 제도적 으로 담아내기 위해 공론장과 현장 소통 채널을 재편한다. 핵심 기구인 30명 규모의 시민주권위 원회(시민주권실행·미래도시경제·매력도시조

성 3개 분과)가 내년 1월 출범하며 시장과 위촉직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공정성을 담보한다. 모바일 정책투표 시스템(Y-voting)과 100여 명 규모의 여수시민회의도 도입해 주요 정책 결 정에 투명성과 수용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생활 불편 사항과 정책 제안을 문자로 손 쉽게 보내는 시장 직통 ‘시민소통폰’이 호응을 얻는 가운데 국민신문고 민원 중 현장 확인이 필 요한 사안은 48시간 이내 초동 대응 원칙을 세워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합의제 의결 기구로 확대하고 매주 금요일 열리는 간부회의를 유튜 브와 시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공개해 시정 투명 성을 제고하고, 온라인 기반 ‘주민 e참여예산 시 스템’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주권 기후회 의도 새롭게 운영한다. 특히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민원 처 리의 질을 대폭 높인다. 분산된 민원 채널을 하 나로 묶고 검색증강생성(RAG) 기반의 AI 시스 템을 도입해 365일 지연 없는 민원 응대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7년 핵심 플랫폼 시범 운영을 거쳐 2029년 전 부서 고도화

를 마칠 계획이다.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 강도 높 은 부패 방지 대책도 추진된다. 계약·보조금·인 허가 등 취약 분야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부시장 주재로 연 2회 점검 회의를 열어 실적을 엄격히 관리한다. 아울러 잦은 정보를 막기 위한 2년 제한 규정 준수, 전문관 지정 확대로 업무 연속성을 꾀하고 위원장을 시장으로 격상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혁파에 앞장설 방침이다. 시정 역량과 재정 체계 고도화를 위한 관급 공 사 계약의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 해 관급자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기 존 1억원에서 7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문 인력풀을 활용한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모든 계약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여수의 향후 100년을 기획할 시정 총괄 싱크탱 크인 ‘미래전략 컨트론타워’ 전담 조직도 신설된 다. 부서 간 얽힌 복합 행정 수요와 국책 사업에 선제 대응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다. 건전 재정을 위해 보통교부세 평가 항목을 중 심으로 세출 절감과 세입 확충에 나서며 노동자



여수시가 행정 체질 개선을 통해 시정 전반을 시민 주도로 개혁하는 ‘시민주권 시대’를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서영학 여수시장이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소통하는 모습. <여수시 제공>

복지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뒷받침할 ‘노동정책 전담조직’도 설치한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시민주권도시 14대 핵심 과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시정 전반

의 체질을 시민 중심으로 완전히 개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투명·혁신 행정으로 ‘다시 뛰는 여수’를 반드시 완성하겠 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화순군, 석탄 운반용 폐철도 ‘명품 철길숲’ 조성

국가철도공단 유휴부지 공모 선정
화순역-광덕교차로 옛 복암선 구간
2029년까지 선형공원 탈바꿈 목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의 옛 석탄 운반 용 폐철도가 군민들을 위한 도심 속 생태 길길 로 탈바꿈한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 주관 ‘202 6년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돼 장기간 방치됐던 옛 복암선 폐철도 부지를 선형공원으로 조성한다. 공모 선정으로 군은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 소유인 화순역(백리리)에서 광덕교차로(광덕 리)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3km 구간(8만6천613㎡)을 최장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됐다. 토지 매입비를 절감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 군은 오는 2029년까지 걷고 쉬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구간은 과거 화순광업소에서 생산된 석 탄을 실어 나르던 곳으로 폐선 이후 삼천·광덕



화순군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대상지인 복암선 폐철도 부지. <화순군 제공>

지구 등 도심을 단절시키는 주변으로 좁혀왔다. 불법 쓰레기 투기와 무단 경작 등으로 골치거 리였으나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 환경 녹색축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특히 외곽 산림의 찬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시 키는 ‘바람길’을 구축해 폭염과 도시열섬 현상 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조성될 철길숲은 꽃강길, 개미산전망 대, 남산공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등 화순

읍 주요 문화·체육 인프라를 잇는 연결고리 역 할을 하며 도심 관광 활성화는 물론, 침체된 주 변 골목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 로 예상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환 경을 저해하던 폐선로가 소중한 녹색 공간으로 되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 푸른길 이나 서울 경의선숲길처럼 화순 만의 특색을 품 은 명품 철길숲을 조성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 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



손훈모 순천시장이 최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 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손훈모 순천시장, 국회서 내년 국비 증액 건의

권향엽 의원 등 면담 1천612억 요청
“공공기관 이전, 환경·에너지 분야 유치”

손훈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장이 내 년 국비 확보와 제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국 회를 찾아 지원을 건의했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 시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과 국 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민주당, 서울 양천 구을)·염태영(민주당, 경기 수원시무) 의원을 만나 정부 예산안 미반영 사업에 대한 1천612억 원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건의된 주요 사업은 ▲광주송정-순천 철도

건설(1천493억원) ▲순천 해룡 국도대체우회도 로 건설(22억원) ▲코스트코 입점 대비 매안교 차로 병목지점 개선(60억원) ▲2027 세계태권 도 한마당(5억원) ▲K-디즈니 콘텐즈 인제 허 브 기관 조성(32억5천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순 시장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환경·에너지·문화 분야 기관의 순천 유 치를 강력히 건의했다. 여수·광양 국가산단과 연계해 전남 동부권 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 겠다는 구상이다. 손훈모 시장은 “순천의 미래 성장에 직결되 는 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반드시 반영되도 록 뛰겠다”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순천 을 넘어 전남 동부권 전체 도약을 이끌 중요한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성학 기자

보성군, 도시재생대학 2기 모집
9일까지 차 문화·바리스타 강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은 5일 “지역 대 표 자원인 차 문화를 알리고 주민 역량을 기우 기 위해 도시재생대학 2기 참여자 30명을 오는 9 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성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마련 된 교육은 오는 12일부터 11월18일까지 6주간 (총 12회) 매주 월·수요일 보성행복마루에서 진 행된다. 전문 강사진이 나서 차 문화와 커피 제 조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차 문화 교육에서는 보성 차 산업 역사와 현 황을 배우고 말차 음료·전통 다식 만들기, 나만의 차(블렌딩) 만들기 등 실생활에 유용한 실습 이 진행된다. 또한 지역 차밭·제조 시설 방문과 구례·경남 하동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해 차 문화 공간 운영 사례도 살펴본다. 바리스타 교육은 원두 볶기(로스팅)부터 분쇄, 추출, 에스프레소 기기 조작법 등 기초부터 다진다. 교육생들은 라떼와 드립 커피 등을 만 들며 실무 감각을 익힐 예정이다. 특히 마지막 수업에서는 보성 차를 접목한 지역 특색 음료를 제안하고 품평회를 여는 시간도 갖는다. 신청은 보성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방 문하거나 온라인(네이버 폼)·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다.(문의 보성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061-852-5616·보성군 도시재생팀 061-850-5588) /보성=임병연 기자

장성군, 농경지 침수 예방 배수개선사업 속도

총 112억원 투입 장안·황룡지구 대상
펌프장·유수지 등 2030년 준공 목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은 5일 “집중호우 로 인한 농경지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 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2억원 규모 의 배수개선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배수개선 사업은 장성읍 장안지구와 황룡면 황룡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안지구에는 지상 1층(건축면적 86.4㎡) 규모의 배수펌프장 을 신축하고, 0.63km 구간의 개거(상부를 덮지

않은 배수로) 3곳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배수 기능을 강화한다.황룡지구는 계곡 빗물이 지방하천으로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총 5곳 26 km 규모의 배수로를 개선한다. 아울러 하천 수량을 조절할 유수지 2곳을 황 룡리와 옥정리에 각각 조성하고 물 빠짐이 불량 한 농지에는 복도 작업을 실시해 침수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달 30일 장안지구에 이어, 이달 6일엔 황룡지구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민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토지소유자 동의 와 농림축산식품부 인가를 거쳐 착공해 2030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장성=김문태 기자



담양군, 민선 9기 군정 방향 공유

박종원 군수 ‘군정 소통의 날’서 설명
지역 경제 활성화·삶의 질 향상 정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5일 “최근 군 청 면양정실에서 공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군정 소통의 날을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 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선 9기 군정 방 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박종원 군수는 경제·정주 분야 핵심 방침인 ‘삶이 윤택한 활력 경제’를 집중 설명했다. 박 군수는 “경제가 살아야 지역에 활력이 생 기고 군민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며 “전통시장

과 소상공인, 농업인과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 안에서 소비와 소득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기존·신규 사업의 필 요성과 한계를 살피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통합 발전기금 등 새로운财源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주거 환경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을 지속 개선할 방 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신규 공무원 36명에 대한 임용 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우주산업 전진기지 ‘스페이스고흥’ 준공

130억 투입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5일 “최근 우 주산업 거점 마련과 주민 문화 공간 확충을 위 해 조성한 복합문화센터 ‘스페이스고흥’이 문 을 열었다”고 밝혔다. 고흥군청사 인근에 들어선 스페이스고흥은 총사업비 130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3천70㎡ 규모로 건립됐다. 우주 관련 기업의 연구·업무를 돕는 기업 지 원 공간과 생활·문화 시설을 한데 모은 것이 특 징이다.

지하 1층 ‘누리홀’은 500석 규모 대회의실을 갖춰 각종 공연과 교육, 주민 행사 장소로 사용 된다. 1층은 방문객 휴식을 위한 우주가상체험 형 북카페와 고흥 우주발사체 사업을 알리는 홍보전시관이다. 핵심인 2층과 3층은 우주발사체·국가산단 입 주기업이 연구와 업무를 볼 수 있는 ‘공용오피 스’로 운영된다. 이미 2층에는 고흥군 우주항공 산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전략실이 입주를 마 처 기업의 지역 정착과 교류·협력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 있다. 4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됐다. /주성학 기자